



중국의 그린전구 지원정책

보조금으로 그린전구 보급 확대

중국 정부, LED 등 그린전구 지원 강화



LED 조명으로 빛나는 상하이 야경
출처 : www.gushun.com.cn

지난해 중국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는 “절전형 조명기구 보급에 관한 정부 보조금 관리 잠정방안”을 통해 5,000만 개의 절전형 전구 보급지원책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가 보급·지원한 전구 수는 당초 목표를 초과한 6,200만 개에 달한다. 이어 올해에는 1억 개의 고효율 전구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백열전구 생산량을 전년 대비 15% 줄이고, 절전형 전구 생산량을 30%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10억 위안 이상의 소비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LED 등 중국 절전형 전구시장의 잠재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절전형 전구 보급에 관한 정부 보조금 관리 잠정방안 주요 내용

(07년12월 28일 발표, 시행)

- 보조금은 간접보조금 형태로 지원됨. 즉 중국 재정부에서 입찰을 공고하여 선정된 기업은 제품 가격에서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제한 가격으로 전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함
 - 대중 제품 사용자에게는 제품가격의 30%를 지원하며, 주민 사용자에게는 제품가격의 50%를 지원함
 - 대중 제품 사용자는 공업, 광산기업, 오피스 빌딩, 병원, 학교, 항만, 도로 등 조명제품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말하며, 주민 사용자는 주택(아파트 등)이나 정부 공공조달을 단위로 하는 것을 가리킴
- 1차 입찰은 2008년 4월에 실시했으며, 총 13개 기업이 선정됨. 이 가운데 11개 기업은 중국기업이고, 외자기업에는 필립스와 OSRAM이 선정됨
 - 2009년 2.25 ~ 3.16까지 2차 입찰을 마쳤으며, 외자 기업 3개사(필립스, 오스람, 파나소닉)등 총 20개 기업 선정
 - 중국국가에너지절약제품인증을 보유하고, 중국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에 입찰 신청자격이 있음

최근 과학기술부는 LED 전구 보급 확대를 위해 21개의 시험도시¹⁾를 정식 확정하기도 하였다.

중국 LED조명 응용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목표

단계	주요 목표
시험(試點)단계 (~2009)	21개 시험도시를 선정해 100만 개의 LED 조명기구 사용, LED 주요부품의 국산화를 목표 60%, 연간 절전량 2억2000만 kW
시범(示範)단계 (2010~12)	50개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200만 개의 LED 조명기구를 사용, LED 주요부품의 국산화를 목표 70%, 연간 절전량 10억 kW
보급(推廣)단계 (2013~15)	전체 조명시장의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교체, 연간 절전량 1,400억 kW, LED 조명산업의 규모 5000억 위안, 수출 300억 위안

자료 : 현지 보도내용 종합, KOTRA 다롄 KBC 정리

절전형 전구 보급 현황

중국에서도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LED 전구는 백열전구에 비해 수명이 50배가량 길기 때문이다. 중국의 백열전구 보급량은 약 30억 개 정도인데 비해 절전형 전구는 약 4억 개에 불과해 백열전구와 절전형 전구의 사용 비율은 7.5:1 정도이다. 이는 세계 평균인 4:1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LED 전구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량은 전체 사용 전력의 12%인 3,000억 kW/h로, 만약 중국의 백열등을 모두 절전형 전구로 교체한다면 연간 절약 가능 전력은 중국 산사(三峽) 발전소 발전량의 60%인 480억 k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LED 전구 생산, 세계 1위

중국은 세계 최대 LED 전구 생산지이다.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LED 전구 생산량은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전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화남, 화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LED 전구 전문 기업에는 FSL(佛山), Yankon(阳光), Cnlight(和雪莱特) 등이 있다. 이들 기업 중 절강의 Yankon, 광동의 Opplle(欧普), FSL,

NVC(雷士), Eletrician(电工) 등은 국가유명성상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량 세계1위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LED 절전조명 생산기술이 부족해 대부분의 부품을 외국 수입제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절악형 조명시장 경쟁 동향

현재 중국 LED조명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필립스와 GE 등 해외 브랜드를 포함하여 20여 개에 가까운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한 브랜드는 없고 다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중국 절악형 조명시장의 주요 브랜드는 아래와 같다.

중국 절악형 조명시장의 주요 브랜드

1		네덜란드	세계 조명기구의 선두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첫 번째 해외 조명 브랜드이며 합자방식으로 생산
2		중국	가장 인정받는 중국 조명 브랜드로, 2004년에 '중국의 가치 있는 브랜드 500'에 선정
3		중국	중국 최대의 조명 및 발광기구 제조 기업으로, 베이징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
4		일본	1995년에 중국시장 진출하여 조명 기구를 공략
5		중국	중국 소비전자제품 생산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절악형 조명 생산량이 2,500만 개에 달하는 베이징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
6		중국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절악형 조명 생산기업으로, 중국 Philips의 생산을 맡고 있으며 이 기업의 절악형 전구는 중국 시장의 15%를 점유
7		중국	역사가 오래된 중국 조명 생산·판매 기업으로, 정부 구매목록에 오른 에너지 절악형 상품 브랜드
8		중국	세계 양대 조명 브랜드 중 하나인 Osram은 Siemens의 자회사로, 1995년 중국 시장에 진입해 푸산시에 생산 공장을 설립
9		독일	대표적인 조명 브랜드

자료 : lampol(中国灯具网)

첨단기술을 내세운 해외브랜드는 고소득층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필립스, 오스람, GE 등 첨단기술의 선두주자인 해외브랜드는 대형 공간의 실내조명, 의류 브랜드 상점, 고급 레스토랑 및 고소득층의 조명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NVC, TCL, Opplle 등이 중국의 대형마트 조명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저가 브랜드들은 소규모마트와 건축자재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LED 조명기업의 중국진출 가능성

최근 중국은 LED 절전조명 시험도시로 선정된 21개 도시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LED 절전형 조명으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LED 조명의 주요 사용 용도는 가로등, 터널, 지하 주차장 등에서 사용되는 조명과 장식 조명이다. LED 조명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기술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이고 일반 조명보다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근 발전 속도를 볼 때 기술 발전과 원가 절감을 통한 상용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우리 LED 조명기업들은 절전효과를 강화하는 기본 기능과 함께 환경보호 및 건강 기능을 갖춘 조명기구를 출시하며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같은 제품들은 아직 LED 조명에 생소한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쉽게 다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와 고효율 조명 후원 브랜드로 뽑힌 chlighting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택 내부수리 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포름알데히드와 공사 시 발생하는 냄새인데, 이 브랜드는 이러한 유해물질과 냄새제거 효과를 가진 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국 LED 조명시장 진출이 먼 얘기만은 아니다.

1)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 스자좡시(石家莊市),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蘇省) 양저우시(揚州市), 저장성(浙江省) 닝보시(寧波市), 저장성 항저우시(杭州市),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廈門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州市),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산둥성(山東省) 웨이팡시(濰坊市),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鄭州市),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圳市), 광둥성 둥관시(東莞市),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쓰촨성 메이양시(綿陽市), 충칭시(重慶市), 산시성(陝西省) 시안시(西安市)